



# 21세기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의 역할

이 상 주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I. 인사 말씀

존경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준 회장님, 전국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교협 관계자 여러분과 동료 총장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2년 대교협이 출범할 때 강원대 총장으로서 창립 총회에 직접 참여했던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정책에 관한 대학간 협의 조정', '대학정책연구 수행' 및 '정부에 정책 건의'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대학 교·직원 연수' 등 대학교육 발전에 있어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던 17년간 대학평가제도의 도입, 재정지원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을 위하여 다른 총장님들과 함께 노력했던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만일 20년 전 대교협이



창설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고등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뜻 깊은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21세기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대학 총장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II. 지식기반사회와 인적자원의 중요성

우리는 지금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자본, 토지, 노동 등의 자원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더욱이 수십일마다 지식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고 지식의 순환 주기가 날로 짧아지고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습득하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사회나 국가도 점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의 진행으로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습득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중요성이 보다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은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더 한층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구촌에서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서는 원천 지식과 기술 개발을 위한 경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경쟁이 다른 어떤 경쟁보다 중요하고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이 국력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서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추적 사회 조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높은 교육열과 지적·문화적 창조력, 강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국가인적자원 정책을 총괄토록 하였으며,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나해 말 18개 부처와 공동으로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람과 지식' 즉 인적자원을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동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

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국가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Ⅲ. 21세기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의 역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지식 강국,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산업사회의 대학교육 체제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체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습지만, 아직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등교육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여 선진 국가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수 34%로 5위, IMD, 2001).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은 양적 성장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할 대학의 역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게재 논문 수로는 세계 14위에 이르고 있으나, 질적 수준인 영향 계수(Impact Factor)로 보면 세계 50위권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은 세계 49개국 중 28위, 교육 부분 경쟁력은 32위, 대학교육 수준(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47위,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 정도 19위(IMD, 2001)

또한, 거의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형태의 단일모형으로 획일화되어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인력을 개발, 공급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지식기반사회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창의적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사 조직,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 매체는 물론 대학 행정과 운영 방식까지도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학에서 비효율적인 대학원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울어져 가는 기초학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사회적 적합성을 상실한 직업 전문교육을 재점검하고, 호트러진 교양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며, 소멸되어 가는 도덕교육의 감화력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 개발은 결국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독창적 지식 창출과 확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학문적, 교육적 수월성을 실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체제 구축 강화

그 동안 대부분의 우리 대학은 백화점식 종합대학을 지향하여 양적인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각 대학의 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종합대학 지향은 대학이 '선택과 집중'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여 학문분야별 수월성을 높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일반적인 대학 서열화만 초래하여 일류 대학에 들어가려는 과도한 경쟁과 학벌주의를 야기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획일적인 종합적인 구조만으로는 새로운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학간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각 대학은 특정한 분야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다른 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대학은 국가의 전략적 육성분야,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대학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화가 결국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도 높이고 대학의 참예한 서열 구조도 완화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문화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2. 대학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간 한국 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 대학 설립 준칙주의 시행, 총·학장 선출 방식 개선,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대학 총정원제 등 이미 많은 부문에서 자율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대학 제정지원 시에도 지원은 확대하면서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을 존중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립대학의 운영·회계·조직·정원·인사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칭)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자율에는 대학 스스로의 책무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집니다.



◀ 좌로부터 Samuel H. Smith 워싱턴 주립대 명예총장, 이상주 부총리, 장상 이화여대 총장(사회), Gavin Brown 시드니대 부총장

내재화된 자율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여 대학이 스스로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대학의 국제화 · 세계화 촉진

경제, 통신 등 타 사회영역에서는 국제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대학사회의 국제화는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기업은 다국적 기업화하고, 학생은 세계 기업을 상대로 직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외국 유학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외국 학생들의 유치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세계 수준의 대학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 교환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의 적극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부도 WTO의 제 2차 협상에 대응하여 '교육 서비스 협상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학의 국제화 ·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계속 발굴 · 개선하여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MBA, IT분야 등 국가전략분야 등에 있어 외국 우수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4. 산 · 학 · 연 협력 촉진을 통해 대학이 산업체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대학은 '산업체 등 노동시장'과 보다 긴밀히 연계되어 이들이 요구하는 지식을 창출 · 보급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 ·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는 산 · 학 · 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대학 내에 산 · 학 협력단을 설치 · 운영하고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 인증제를 확대 운영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각 대학들은 지역별, 권역별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대학의 평생교육·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기능 강화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유용성 주기가 더욱 짧아져 평생토록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평생학습의 국제적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인들의 학습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성인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생교육 기능 강화는 성인 학습자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학의 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 6. 교양교육과 기초학문 육성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과정에서 교양교육과 기초학문의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교양교육과 기초학문이 부실한 상황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가치관 정립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학문 발전과 과학기술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는 기초학문 육성에 매년 1,000억 원씩 3년간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금년에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총장님들께서도 교양교육과 기초학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기초학문 전공자에 대한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IV.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대학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는 대학 교육의 질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도 대학은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했듯이 지식정보 사회에서도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위해 대학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율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미래의 부름에 맞게 개선해 나가려면 여기 계신 각 대학의 총장님들의 역할과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 대학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기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총장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